

습기에 알루미늄 공장 속수무책 화재...드론연습장은 쑥대밭

집중호우가 휩쓴 광주·전남 처참한 상흔들

알루미늄 분말 물과 접촉하면 발화...화재 진화 안돼 발동동 수습역 들인 광주 북구 드론 비행연습장 초토화에 망연자실 담양선 수백억대 농작물 피해...추석 출하 앞둔 농민들 한숨

집중호우가 휩쓸고 지나간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는 수해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폭우로 과도하게 습해진 대기가 오히려 화재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수억원을 들인 드론 비행연습장이 초토화됐다. 이들 간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담양에서는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600억원을 넘어섰다.

900t이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물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곡성군에 모래를 요청해 살포하려 했으나, 곡성된 모래가 계속된 비로 모두 젖은 탓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곡성군 등은 계속된 비로 습해진 날씨 탓에 대기 중 수분과 알루미늄 분말이 반응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우로 화재진압 어려워=지난 10일 밤 9시께 곡성군 석곡면 농공단지 내 알루미늄 분말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알루미늄 분말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는 성질이 있어 물을 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소방당국은 단열용 인공 골재인 팽창질석을 살포해 진화 중이다. 하지만 불이 남아있는 공간에 접근이 어렵고, 온도가 높은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 내부의 알루미늄 분말이 타 없어져 자연소화되기를 기다리면서 확산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가 난 공장 안에는 알루미늄 분말

공장 관계자는 "대기 중에 노출된 알루미늄 분말이 자연발화 하는 것은 드론 일"이라며 "이 일을 25년 동안 해왔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다"고 말했다.

◇쑥대밭 된 드론 비행연습장=수억원을 들인 광주시 북구 '드론공원'도 폭우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영산강이 범람하면서 광주시 북구 대촌동 1만343㎡ 규모로 조성된 드론공원이 초토화가 됐다.

드론공원내 시설물들이 불어난 강물과 빗물로 인해 총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드론공원 외곽을 둘러싸



11일 오후 곡성군 석곡면 농공단지 내 알루미늄 분말처리 공장에서 알루미늄 분말이 불타고 있다. /곡성=김민석 기자 mskim@

고 있던 가로 6m·세로 6m의 대형 이동식 철제 펜스 65개가 종양장처럼 구겨져거나 유실됐다.

물이 빠진 공원 내부에서는 1000㎡ 면적에 설치된 점토블럭과 이동식 화장실이 자취를 감졌다. 공원에 심어져 있던 510㎡ 면적의 인조잔디도 강물에 휩쓸려 갔다.

실기시험장 대기장소 쓰이던 공복식 텐트도 불어난 강물에 사라졌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 기술개발(R&D)사업 추진 등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북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집중호우로 '드론공원' 외곽을 둘러싼 철제 펜스가 구겨져거나 유실됐다. <북구청 제공>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휩쓴 상처에 농민들 시름=이들 간 최대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진 담양에서는 수백억원대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8일 담양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353ha가 침수됐다. 세부적으로는 논 1000ha, 원예 223ha, 과수 130ha 등으로 피해액만 681억원에 달한다.

지난 7-8일 이들 간 담양군에는 평균

546mm의 강수량이 내렸으며, 이중 봉산면에는 최대 64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당장 추석 출하와 추수를 앞두고 발생한 피해라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수북면에서 10ha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김재호(50)씨는 "벼농사를 20년째 짓고 있지만, 태풍이 왔어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며 "나락이 올라올지 걱정이다. 집중호우 전에도 날이 갠 햇볕이 들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물까지 차있다 빠진 상황이라 병충해도 생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곡성=김민석·정병호 기자 jusbh@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수해 시름 지역민에 '새끼홍어'·'오뎅탕' 비하라니...

이재민 두번 죽이는 상식 밖 글 잇따라...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 촉구

광주경찰, 누리꾼 내사 착수

집중호우로 생활터전을 잃은 전남지역 주민들 속이 속이 아니다. 이런 지역민들을 또다시 '홍어', '오뎅탕'이라고 비하하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상대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담양 집중호우로 희생된 8살 아이를 비하한 누리꾼을 엄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

라왔다. 청원인은 '폭우로 삶이 부서지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은 분도 있는 상황에서 축재라도 되는 양 지역감정으로 난도질하며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집단'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비하 글은 수해 피해자를 '갓 잡은 새끼홍어, 오뎅탕'으로 비하했고 '호남·수도권 xx들은 천벌받은 듯'이라고 하는가 하면, 폭우로 물에 잠긴 전남 피해 현장을 올려놓고 '속이 시원해지는 짬(장면)'이라고 게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낱말당 침수 기사와 관련, '미숫가루 먹으려 줄 서는 사람들', '죽어서도 별반은 광주'라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행태도 드러

냈다. 청원인은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감정조장글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누리꾼들을 대대적으로 수사, 지역감정조장, 비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고 썼다.

경찰은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 외에도 호남지역 수해 피해를 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피해자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을 확인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국민 정서에 반하는 호우 피해자 비방이나 조롱 글에 대해 위협성을 확인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구본선 고검장 "국민의 질책 무겁게 새기자" 여환섭 지검장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

광주고검·지검장 취임식

여환섭 신임 광주지방검찰청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검사는 기소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넘겨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고려한 입장이지만 검찰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국민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진

술 증거는 조서가 아니라 공개 재판을 통해 직접 신문해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재판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판·특수 사건에서 검사가 기를 쓰고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로도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그는 또 검찰 업무 중점을 "공판 준비 업무"로 바꾸고, 공판 활동에 집중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공판중심주의에 맞는 검찰 변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취임사를 계기로 얼마나 반영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이날 취임하면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달라는 국민적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기대와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무겁고 겸허하게 새기자"고 주문했다. "실체진실 발견에 매몰돼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냐는 비판도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권 가치를 어떻게 더 실현할 지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서민 눈물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약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 회복의 힘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서민과 약자 편에 서지"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더 공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정당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